



#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린 위대한 승리의 7. 27은 영원하리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 정사, 위대사변으로 흥성이는 이 땅에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더 뜨겁고 의의깊은 출발의 전승절이다.

64년 전 보병용과 원자탄의 대결에서 승리의 7. 27을 안아오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이 오늘은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로 미제의 최후명당을 선고하였다.

지난 6일 수도의 하늘가에 머져 오는 강과 한 쭉,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법도업적을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인민이 드린 숭고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의 불보라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법도업적을 만연에 걸친 빛내이며 혁명선군법과로 병들이 영웅적 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굽건히 이어나가는 것을 밤새마다 결전을 총결산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방침입니다.』

미로써 경위한 승리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 진리를 보통강안에 풍장하게 견실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볼 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더할 없는 감사의 정으로 누구나 적정을 금지 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세우신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선보수하기로 결심하고 현지에 나오신 것은 주제 101(2012)년 7월 8일이었다.

입군에게 오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어떻게 개선보수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결심하자고 나섰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관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전하는 세상에 불과 없는 전승절로, 밀양과 함께 군교양의 기본기점으로, 송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품평히 일찌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절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어느날 다시 금천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관의 면전을 새로 잡아주시면서 《승리》상 위에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놓아놓았던 것이다.

그이께서 잡아주신 면전을 바라보는 일군들은 경원을 할 수 없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쟁노력을 형상화한 군상들을 거느리고 저녁 햇 손색 있는 《승리》상 위쪽은 그야말로 기념관을 세울 때였던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새로 건설함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기와 구상을 일군들은 물론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병도의 손길이 력력 어려웠는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진승기념관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줄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목표와 평화적인 명단들도

전승기념관으로 밝혀주고 강력한 건설력을

갖고 수령님의 손길에 힘껏 펴았던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승기념관 건설을 정력적으로 병도하면서 남북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원수님의

파괴에 대처해 전승기념관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주제 4(1953)년 7월 27일 일 오전 10시, 드디어 판문점에서는 정전협정조인식이 있었다.

역사적인 조인식 전행되던 그 시각 전선의 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이 걱정속에 라자리오으로 모여 들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의 순간이었지.

미국동군 사령관 김정은 대장은 10분동안이나 손을 부들부들 떤다며 협정문에 거우 수표한 후 《나는 모든 것이 실패라는 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선임자들이 베어나와 끗지워 이장군들도 통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군들의 계매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때면서 군라크는 기자들에게 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을 빛내이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건설건물에서 떤이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파의 정

세가 세시각과 전쟁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그때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의 미리우에 준엄한 칠추를 내비칠 승리의 작전도를 희종군수관신하고 걸음으로

전진장을 찾으시었고 현지지도에서

불이 오시는 그길로 또다시 찾으시며 블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기념관건설장에 있었고, 기념관을 세우는 그야말로 기념관을

세우는 미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아내였으며 2000년대에도 미제

와의 전면대결장으로 펼쳐지는 경쟁으로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은 천만 군인의 심장을 끌어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봄을 품

#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나가자

## 전쟁의 마지막 시기의 영웅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는 경정은 등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50년도 영웅전사를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란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침략군대도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53년 7월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시기였다.

존엄한 전쟁의 3년간 수많은 사선의 고비들을 넘고 해쳐온 인민군용사들에게는 해방후 5년과 같은 새 생활과 부모자녀들의 가슴벅찬 상봉의 시각이 한치 한치 다가오고 있었다. 정성 전쟁의 3년간은 걸었지만, 할았지만, …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전승을 위해, 그 승리를 다룬 및 초과도 일당기기 위해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기관총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부부두를 한 자료집들은 오늘도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말없이 전해 주고 있다. 조국해방전쟁기념관 학술연구부의 김정순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1953년 7월에도 고고작은 수많은 전투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전투들에서도 인민군용사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날길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전쟁 전기 배출된 공화국영웅들을 향해 고마워하고 있다.』

당시 『영예로운 정전』을 꿈꾸며 진행되는 적들의 발악은 더욱 악랄해졌다. 전 채 인인 군사전략 가이드 미체전백승의 강철의 망자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전선에서의 떤 속적인 강타로 미체의 마지막 힘을 통하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키 위하여 3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조직하였다.

1953년 7월 중순에 전개된 『태대장』고지전투, 『탈산』공격전투가 그 대로 적전투였다.

위 대 한 명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야

영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사 그 누가 이는 없어도 당과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이 한 순간에 나서면 주제 없이 결사의 그 길에 나설 각오가 되어있었다.

이런 실각한 불

운 앞에 나자신을 세워본 충직한

개기 있었다.

전승필을 알았고, 조국해방전

생활원료 사료를 돌아보면 나는

한 영웅의 표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른 혈사들과는 달리 표비에 올당 새겨져 있어야 할 사연이 없었던 것이다.

공화국영웅 최정웅동지

조선인민군 병사

1931년 1월 9일생

1950년 9월 3일 전사

발걸음을 끊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강

사는 최정웅동지는 나서자란 고

향이 어진지도, 소속과 직무도

전해지는 것이 없으며 사절도 없

다는 것, 오직 그 군인이었으며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는

것만을 알고있다는 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야』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년 새웠다. 지난 5년간은

당의 명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국제법률, 강국임무를 담당하

도록 전진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서 경이적인 성과를 디달적으로

번창적으로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모습에

기록하고, 일군과 당원을

</



# 지식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

제 15 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기

## 개발창조를 더욱 추동하는 의의 깊은 계기

위대한 당의 첨두적호소따라 만비미축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최후승리를 위한 전민총출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온 나라의 발명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각계층 고로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 15 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인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분을 끌리 빨리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둘 어려워나가야 합니다.』

발명창조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응례에 제 15 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를 위해 과학기술전당에 제의 있게 전행하도록 하여주시었으며 전람회의 규모와 형식, 지방에서 오는 발명가들의 축속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달려고 발명총국에서는 이번 전람회에 발맞춰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명과 새 기술창조를 더욱 추동하고 저작제품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여 나라는 경제토대로 본래의 풍랑을 허락하여 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만난 발명총국 처장 류철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리미속도창조로 불리는 첨두장미디에서 드세원 과학기술밀봉을 일으켜온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과 근로자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창상이 기발하고 독특하며 경제적실리와 현실적의의지를 새 기술과 파트너들이 실증과 모형, 도체 등의 형태로 출품, 전시되었다.

이 모든것이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달이고 최근년간 철로와 앤로, 실비의 국산화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정보화,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제품제작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장된다.

『이번 전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의 남다른 민족적자존심과 드높은 애국열의, 뛰어난 창조적능과 자립경제의 막강한 위력을 직

금 할수 없습니다.』

선후구역 진관판피소 공동자연 특별위원회에 군인 한데평동무는 영예군인들에게 대한 우리 당의 한 랑없는 사랑과 온정을 받아안을 수록 고마운 조국을 위해 그 무엇인가 이비자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노력했을뿐이라고 하였다.

강원도혁동수상경리위원회 주임은 어떠한 창단과 기술창작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 불하는 대국의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밀당카로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었다.

전람회장은 개막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내놓은 과학적발견과 기술적발명, 과학기술작방이 애민된 수많은 저작제품들은 참관자들에게 우리에게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심을 높여주고있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발명전과 특별전을 맡은 기술과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이 성, 중앙기관, 각 도(직할시)과학기술위원회별로 전시되었으며 새 기술의 보급과 교류, 유통사업이 다양화되고 노력했을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어떠한 창단과 기술창작의 요

행되고있다.

전일 대성황을 이루며 진행되었던 이번 전람회는 우리 당에 대한 창조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키우니 기발한 창상과 혁신적인 발기도 나오고 선진과학기술로 우뚝의 것으로 만들고 더욱 발전시킬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기사의 실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번 전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의 남다른 민족적자존심과 드높은 애국열의, 뛰어난 창조적능과 자립경제의 막강한 위력을 직

점령할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후세력을 끌어들여도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새 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지식 경제 강국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람회에 참가한 단체수는 640여개, 참가한 발명가들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속에는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당,

국가를 직

점령할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후세력을 끌어들여도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새 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지식 경제 강국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람회에

참가한 단체수는 640여개,

참가한 발명가들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속에는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당,

국가를 직

점령할수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람회에

참가한 단체수는 640여개,

참가한 발명가들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속에는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당,

국가를 직

점령할수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람회에

참가한 단체수는 640여개,

참가한 단

## 최후승리의 7. 27을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우리의 7. 27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세계《회장》을 자랑하면서 미제 주주의 사용을 멀망의 내리막길에 물어놓은 궁지노는 승리자의 명절이다.

경애하는 최고지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시었다.

『조국방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탄원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블라는 애국심과 뼈풀들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방전쟁에서 및 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과 인류자주위업 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성을 전두에 놓이 보시였던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은 세국주의의 피수이며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서서싸워 전쟁생애에서 유예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 빛나는 전승을 압이울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탄원한 전략전술에 미제의 『상승사단』, 정부대들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으며 전쟁환진자들이 고안해낸 각종 『공세』가 걸을마다 격파되어졌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린 전승의 7. 27은 만세반미투쟁의 새로운 양향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함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적들의 군사적도 밭작통을 단호히 제압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공적을 숨어한 걱정속에 새겨안으면서 세계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장을 반드시 최후승리로 결속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 이땅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조국평우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나날들이 흥려가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꺼풀려 뛰어난는 전승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1950년대의 불과의 정신으로 걸음걸음 미제를 풍파하게 죽여온 선군조선은 전승의 추억이 어린 7월에 최후승리의 죽포인양 화성을 울리였다.

행성을 휘둘며 창공높이 솟구치던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눈부신 도모은 선군민족의 짐장을 세워개격 동시켰다.

대륙간탄도로켓발사를 단번에 성공시킴으로써 우리는 국가원부령원성의 세기적사업을 끌어내게 실현하였으며 선군조선은 반제자주의 성세, 사회주의 경보부로 더 옥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다.

이것은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항복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지금 그 예언은 현실화되고 있다.

하늘을 휘둘며 우리를 초성밀타격수단들의 위력에 적들을 진압하고 있다. 북을 되돌릴수 없는 해보우주의 지위에 올려세웠다. 이제는 전문학적인 액수의 돈들로 미비일방세계를 구축한다고 하여도 복의 혜택을 막아낼수 없게 되었다는 폐지자의 이후성이 적진영에서 드립임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선군조선의 무지비한 공세에 적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최대의 암박감에 시달리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의 신들은 미국이 애써 데려온 반미대결장을 통해 민족의 힘을 호르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허세를 부리지만 당황당조해하는 눈치가 력력하다. 조미대결전은 사실상 끝났다고 할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자력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빅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회성-1·4·3형』의 원천핵무기로 미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친족자장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